

사우디, 식품 및 건설용 자재 수입관세 하향조치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난 4. 1(월)자로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식품 및 건설관련 자재 등 약 18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하향조정 또는 면제하였음.
- 금년 2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8.7%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여 최근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사우디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냉동 가금 식품, 유제품 및 식용유 등의 식품들에 대해 현행 20%의 수입관세를 5%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, 특히, 소맥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25%의 수입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음.
- 또한, 최근의 건설경기 붐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, 전선, 파이프 및 석고보드 등 건설용 자재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5%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.
- 한편, 사우디 정부는 최근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달러화 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인 riyal화의 미 달러 페그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였으며,

- HSBC 등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,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자국통화의 revaluation이나 미 달러 페그제 포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년 말에 취해진 자국민 앞 생활보조금 지급 및 쌀이나 우유 등 생필품에 대한 보조 등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 집행이나 금번에 발표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임.

【두바이사무소 제공】